

총장-뉴스레터 – 84 (2024-7-5) 연합작전

“너희의 처자와 가족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호수아 1:14-15)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대로 (민 32:16-18)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명령한다. 사사기 1 장의 묘사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이 열 두 지파의 연합작전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룬다.

요단강 도하 준비 명령 (10-11)

여호수아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라는 설의법을 통한 하나님의 확증을 듣고, 즉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실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백성의 유사들을 불러 모아 놓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요단강 도하 준비 명령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유사들에게 명한 것과 같은 명령이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유사들에게 명령하였고, 다시 유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여야 할 첫 행동도 일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으로써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는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유사와 백성들로 이어지는 일사 분란한 명령의 체계로 움직였다.

가나안 정복 동참 명령 (12-15)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함께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부여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 32:33). 한편 백성의 유사들을 시켜서 양식을 준비케 한 다음 이 세 지파를 따로 특별히 불러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로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그대로 요단 동편에 눌러앉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대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있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도와 먼저 앞서겠다는 의무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민 32 장; 신 3:12-20).

두 지파 반의 순종 서약 (16-18)

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나', '누구나' 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때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모세에게 르우벤 등의 두 지파 반이 보인 반응은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이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가정하거나 기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충성의 근거가 모세를 뒤 이은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의심없이 인정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갖는 권위는 왕이나(삼상 16: 18) 선지자 같은 그 사람의 지위, 직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라고 격려하였다. 이로 보건대 여호수아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지도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과 공동체의 인정에 근거한다 (딤후 3:1-10; 딤후 1: 6-9).

생각하기

14 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사람들에게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고 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 얻은 요단 동편 땅을 너희가 차지했으니 이제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의 선봉에 섬으로써 그 은혜를 갚으라는 말이다. 이것이 공동 운명체의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할 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고 선선히 내주고 또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앞에 나서서 싸워 주는, 이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의에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였다 (고후 8:9). 이처럼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든 형제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이다(롬 15: 1-2).